

26년 연대 위에 새로운 도약 선언 | 청송포럼, 2026년도 정기포럼 개최

정재용 신임 회장 취임... 정체성 재확인

전주고등학교 동문들의 지성과 연대를 상징하는 청송포럼이 또 한 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동 소재 연가 식당 무궁화홀에서 열린 청송포럼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는 회원과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해 26년의 역사와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제19대 강종찬 회장의 이임과 제20대 정재용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지리로 단순한 조직의 교체를 넘어 세대와 가치를 잇는 청송포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행사장에는 리구한 전주고등학교 교장,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 김동수 전주고 총동창회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김생기 나래코리아 대표,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교육감에 도전하는 아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조지훈 후보, 도의원에 도전하는 송재영 후보를 비롯해 교육·인문·의료·경제계 인사와 역대 회장단이 함께하며 포럼의 깊은 인적 자산을 실감케 했다.

환영사를 맡은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주필은 "청송포럼은 비바람 속에서도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전주고 동문 사회의 중심을 지켜온 지식 공동체라며 '26년 동안 이어진 선배들의 헌신과 회원들의 연대가 오늘의 청송포럼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송포럼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임하는 강종찬 회장은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담담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기쁜 일도 어려운 결정도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참여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한 명의 평회원으로서 청송포럼의 앞날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짧지만 진심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동 소재 연가 식당 무궁화홀에서 열린 청송포럼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는 회원과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해 26년의 역사와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어린 인사는 참석자들의 큰 박수로 이어졌다.

새롭게 회장에 취임한 정재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럼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와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청송포럼은 효율보다 사람, 성과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후배를 동문이 아닌 형제로 잇는 포럼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전직 회장단 방문을 통한 지혜의 계승 장학 사업의 실질적 개선, 하계 아우회와 문화 교류 확대, 일상 속 소규모 포럼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함

게 제시했다. 특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차 한 잔, 식사 한 끼 속에서도 지혜를 나누는 '살아 있는 포럼'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용 회장은 모교 전주고등학교에서 진학자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후배들의 미래를 묵묵히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 이 장면은 청송포럼이 왜 존재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1999년 자발적으로 출범한 청송포럼은 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매월 모임과 강연, 교류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2026 사람중중 열린경영 연찬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정과제에 발맞춘 경영전략 실행을 다짐하며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정읍에 위치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2026년도 사람중중 열린경영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남회형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분사 처·실·원장, 전국 사업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중점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과 함께 2026년 주요 현안 및 본부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2026년 전기제출 감축 대책 단계적 건전성 제고 방안 △신규 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 △전기안전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분사 및 사업소 조직 개편 △현장 종결형 업무 처리 체계 구축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과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돼 국정과제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근 기자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

김제시는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이 16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참여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대식과 참여자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2026년 참여자들은 김제지역 내 복지관, 행정기관, 의료 시설 등에 배치돼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행정동우회,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남원시 행정동우회(회장 이광우)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 담뱃펜 150만원 상당을 남원시동부노인복지관에 필요 물품으로 기탁했다.

남원시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 퇴직자 모임으로 2023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세금 모으기 사업을 추진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00만원씩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고원 치유숲 직원 일동, 진안군에 장학금 기부

진안고원 치유숲 직원들은 지난 16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김종환 부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부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신 의료장비 구축... 전북대병원, 환자 중심 영상센터 개소

전북대학교병원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환자 중심 영상센터를 새롭게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영상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밀한 영상진단과 편리한 검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진료 공간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센터 구축은 진단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검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소식은 영상센터 1층에서 열렸으며,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본관과 호흡기질환센터 사이에 위치한 영상센터에는 일반 영상검사실 7실이 마련됐고, 모두 7대의 최신 검사 장비가 설치됐다. 투시장치와 끝말도 검사장치, X-ray 장비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해 검사 이동 동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번 영상검사실에는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구현하는 최신 장비가 도입됐다. 이 장비는 촬영과 동시에 영상을 디지털화해 기존보다 작은 범위까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성도 눈길을 끈다. 영상센터에는 최대 10개의 환자를 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해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져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고, 탈의실을 통합 운영해 검사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도동동 삼삼동, 시에 삼계탕 200인분 기부

남원시는 관내 도동동 삼삼동(대표 왕홍석)에서 삼계탕 200인분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삼삼동은 2020년 기부·나눔 봉사단체인 '당신은 기부 천사 봉사량'을 설립해 노인복지관, 농이인협회, 경로당 중증장애인 관련 기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삼계탕과 반찬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계탕 기부는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남원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삼계탕과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수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금동과 대성 쉼터보일러 북남원 대리점(대표 정경호) 간 체결된 민·관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동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난방설비 고장 가구를 신속히 파악 수리에 따뜻한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했다. 정경호 대표는 앞으로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김태령양, 3년째 따뜻한 나눔 실천



남원시는 지난 16일에 남원에 거주하는 김태령 어린이가 3년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령 어린이는 2024년 아동 2명에게 각각 5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신의 생일을 맞아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도 생일을 기념해 50만원을 기탁했다. 김태령 어린이와 그 부모님은 "생일을 맞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김태령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시민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영면, 1일 1가구 소통행정 이어가



남원시 아영면은 새로 부임한 면장을 중심으로 한과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통행정에는 맞춤형복지팀이 면장과 관내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해 즉각적인 해결과 복지서비스 연계해 돕는 현장 중심 행정이며,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촘촘한 주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윤자 아영면장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보건소,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까지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10개 경로당과 생활터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가 주 2회씩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지도를 펼친다. 교육 내용은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체조부터 요가, 라인댄스 등 다양한 종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저하된 근력을 강화하고 낙상 예방에 필수적인 균형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 우울감을 줄여주고 생활 만족도는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가까운 경로당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나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 보건지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은는 생활건강센터 건강생활팀(063-539-6994)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용지면 입상교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입상교회가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입상교회 신도들이 매월 소액을 정기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평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입상교회는 지난 2018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들의 학업 및 생활 지원에 전용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지면 주민자치위, 2차 역량 강화 교육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환)가 지난 15일 2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은 후속·심화 과정으로, 교육은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심화 이해와 위원회의 역할 정립,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자치계획 구체화 및 주민참여 운영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제=곽노태 기자